



立志傳的인 齒科醫療界에의 貢獻 方背洞 新社屋 竣工을 契機로 본 (株) 新 興

「우리는 齒科工業發展에 寄與함으로
써 國家에 貢獻한다」



創業主 李煥奎 會長 內外分과 新興의 象徵인 社旗

이것은 지난 7월 1日 많은 內外貴賓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 方背洞에 新社屋 竣工式을 가진 (株) 新興의 社訓이다.

年間 輸出額 約 100餘萬弗, 그리고 泰國에 現地 法人도 가지고 있으면서 印度, 豪洲를 위시한 東南亞一代를 中心으로 한 Unit Chair 等 齒科機材를 輸出하고 있다.

20餘年前 스스로의 約束을 着實하게 實踐하고 있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온갖 齒科機器 및 材料一切를 輸入 또는 美軍部隊에서 흘러나오는 物件으로 充當해 왔던 時節이 近 20年前에 있었던 齒科機材界의 現狀이었다.

(주) 新興의 意志는 이리했다. 自身있는 그리고 意慾에 찬 意志의 表象이다.

- 齒科機材開發의 先驅者
- 齒科工業現代化의 旗手
- 齒科機材輸出의 先驅者

그리고 부지런하고, 努力하고, 꿈이 있는 會社라는 自負心을 가지고 온갖 刻苦와 싸워가면서 研究와 開發에 全社員이 一體가 되어 目標達成에 總力을 다했다.

主 生産品은 Unit Chair이며, 그밖에 Max X-Ray Unit, Panorama X-ray Unit, 멸균기, 아말가메타 等이다. 그야말로 國內 生産品으로 齒科診療現代化에 一端을 이룩해 놓았다.

Unit Chair에 對한 研究開發에 있어서는 Leo II→Skymatic→Regina→Mermaid에서 지금은 Signo가 主宗을 이루고 全國 醫療機關에 約 85%를 點하고 있다.



式場に 들어서서 來賓을 맞는 李東奎 社長

方背洞에 세운 新社屋은 垓地 336坪, 地下 2층, 地上 8층에 연건평 1,265坪이며 現代적인 感覺과 實用性을 爲主로 設計되었고 事務의 自動化와 能率化를 爲해 空間을 效率性있게 調和시켰다는 李元奎 副會長의 말이다.

創業主인 李煥奎會長의 紀念辭에서 『35餘年前 서울의 中心地인 南大門路에서 職員 서너명을 거느린 조그마한 賃貸 점포로부터 始作하여 실로 創業 35餘年 만에 오늘의 이 社屋을 마련하는 感激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社屋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00餘名の 職員과 訪問하시는 많은 内外人士의



竣工테일을 끊는 李煥奎會長과 貴賓



〈紀念辭를 하는 李煥奎會長과 齒協會長 尹興烈 博士〉

